

중국은 아편전쟁 이래 거의 100년이 가까운 세월 동안 이른바 '반(半) 식민지' 상태를 겪으며, 여러 열강들이 이권을 나누어 갖고 중국의 주권을 유린하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당한 역사가 있다. 심지어 "중국인과 개는 출입을 금지함"이라고 쓴 팻말이 구미(歐美)의 식당마다 내걸릴 정도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기도 했다.

이런 역사가 있었기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식민지에서 새로 독립한 제3세계 여러 국가들이 호의를 가지고 중국을 '우방'으로 간주했던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내세우는 '제국주의 반대'는 자신들을 억압하는 세력에 대항하는 것이었을 뿐임이 곧바로 드러난다. 이슬람교도들이 다수를 이루는 위구르지역과 독특한 문화 전통을 간직해온 티베트를 점령해 자치구로 편입시켰지만, '자치'는 허울뿐 실제로는 식민통치와 다를 없었다. 중국이 이 점령지를 통치하는 방식은 일제를 비롯하여 과거 약탈했던 식민제국주의자들의 그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으니, '독립'의 기운 자체가 피어날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었다.

이런 가운데 AP와 AFP 등 주요 통신사가 전하는 소식에 따르면, 티베트의 설날 축제 기간을 맞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 시추안(四川)성의 티베트인 다수 지역의 작은 도시인아바



불자 세상보기

이 병 두
칼럼니스트

티베트 문제는 티베트인에게...

(Aba)에 스님 100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한 스님이 '티베트 독립'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티베트 국기를 흔들며 분신을 기도하자 중국 경찰이 곧바로 총격을 가해 사망했다고 한다.

처음 티베트를 강점한 이래 변함없이 중국은 "티베트는 역사상 중국의 일부이다"라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지만, 티베트 민족은 분명히 한족과 구별되는 특성을 갖고 있고, 자신들의 언어와 문자를 포함한 고유문화 전통을 꽃피워온 오랜 역사가 있다. 특히 이들이 발전시켜온 독특하고

정교한 불교 수행과 교학(敎學) 체계는 오늘날에도 전 세계 지성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티베트가 본래부터 중국의 영토였고, 티베트 민족은 중국인의 일부"라고 하는 중국의 주장이 옳다면, 서너 살짜리 어린이나 출산을 앞둔 임신부가 죽음을 무릅쓰고 수천 미터 높이의 눈 덮인 히말라야를 넘어 네팔이나 인도로 탈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중국에 점령된 지 수십 년이 지나도 '독립'과 '진정한 자치'를 요구하며 저항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해마다 티베트 설날이 다가오면 티베트인들보다 오히려 중국 당국이 긴장하며 불안해하고 공포에 휩싸이는 이유는 또 무엇인가? 우리 속담에 "맞고 온 사람은 발을 뺀고 짐을 자지만, 매를 때린 놈은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지금 중국이야말로, '독립'을 요구하며 깃발을 한 번 흔들고, 분신을 기도했다고 해서 곧바로 총격을 가해 죽음으로 몰고 가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불안한 것은 아닌가?

이 불안감은 어떻게 해야 해결될까? 티베트에 병력을 증원해서 주둔시키고 일체의 종교 행위와 모임을 금지시키면 될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중국 정부와 불교계가 '세계 화합'을 주제로 제2차 세계불교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는 중국 본토뿐만 아니라 타이완과 홍콩 불교계가 함께 주관하여 '중국 불교계의 화합'을 세상에 선포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서쪽 티베트에서는 스님들을 압박하고 총격을 가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상황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 중국에서 말하는 '세계화합'에 티베트는 빠져도 되는 것인가?

그대들의 불안감과 공포 해소를 위해서라도, 중국 당국은 티베트 문제 해결을 티베트인들에게 맡기는 진정한 세계 화합의 길에 나서라.

본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김승호

110-734 서울특별시 중로구 안국동 175-87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hdhopia.com
온라인광고 애드부다피아 http://ad.budhdhopia.com
온라인서점 예시아온 www.yosiamun.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충청지사 : (043)732-5560 영주지사 : (054)634-3429
전북지사 : (063)910-519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사부대중 테마칼럼

3월의 테마-처음처럼

산중을 떠나 도심 속을 뛰어다니던 지 10여년쯤 되던 어느 날이었다. 불현듯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졌다. 그리고 진정으로 나 자신이 되고 싶었다. 나는 주변의 모든 것을 일순간에 정리하고 의아해 하는 주변의 시선을 외면한 채 만행길을 올랐다. 그리고 나섰던 그 길에서 돌아오기 까지는 일 년여의 시간이 필요했다. 돌아오자 나는 곧장 산사에서 두문불출하고 기도만 했다. 떠났던 시간들에 대한 의미를 정리 할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렇게 기도를 마치고 나자 비로소 그동안의 만행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었다. 그 무렵 뜻밖의 제안을 받았다. 수도권에 소재한 중립고등학교 교법사 권유를 받은 것이다.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서 일일언하에 거절했다. 그런데 그 제의는 다른 경로를 통해서 거듭 됐다. 나는 어쩔 수 없이 수락하고 말았다. 천명을 웃도는 학생들 앞에 서니 불현듯 잊고 지냈던 학창시절의 꿈이 생각났고 이 일이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음을 기억해 냈다.

“내게 있어 초심은 원력성취의 원동력”

집안 사정상 늘 부모님과 떨어져 혼자 지냈던 나는 선생님들 덕분에 자칫 잘못될 수 있었던 사춘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었다. 오랜 시간이 흘렀어도 기억에 생생할 만큼 그분들의 사랑은 깊고 넓었다. 그 시절 나는 선생님이 되겠다는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나 삶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선생님이 되겠다는 꿈 옆에 늘 상 가만히 웅크리고 있던 출가자에 대한 동경이 어느 순간 강렬한 힘으로 나를 뒤흔들기 시작했던 것이다. 덕분에 세월이 흐르면서 점차 그런 꿈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망각하고 지내게 됐다. 그러나 초심심사변정각(初心時變正覺)이라 했던가. 근래 들어 취업난으로 인해 교사라는 직업이 일반인들 사이에서 인기 직종이 됐다는 현 상황에서 볼 때 부럽기 짝이 없는 교사가 된 것이다. 이제는 제법 익숙해져 나름대로 의미를 찾으며 지낼 수 있게 됐다. 인성교육의 부재라는 우려 속에서도 미약하나마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청소년들의 심신을 안정시키는데 일조할 수 있는 현실이 고맙게 여겨지곤 한다. 그리고 이렇게라도 하는 것이 시은에 조금이라도 보탬하는 것이라고 다행스러워 하는 한편, 이런 공덕을 지

을 수 있는 인연에 대해 생각해 보곤 한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학창시절에 꿈꾸었던 간절한 '초심'이었다. 내게 있어 초심은 원력을 성취시키는 강한 원동력이었던 것이다. 스즈키 선사는 <선심초심(禪心初心)>에서 초심을 처음 시작하는 마음이라고 했다. 지당한 말씀이다. 처음 시작하는 마음은 열려있기 때문에 늘 상 가만히 웅크리고 있었다. 이 긍정의 힘은 진취적이고 역동적인 힘을 발휘한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간절히 원하던 그 자리로 이끈다. 청년실업이 갈수록 증가하고 유례없이 높은 실업률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생활에 압박을 받고 있는 이때 누구든 간절한 열원을 담은 초심을 갖는다면 실업인구 비율을 낮추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것은 사회를 안정적이고 건강하게 만드는 초석이 될 것이다.



헤정진 스님
의정부 광동고 교법사

대한불교조계종 영축사 포교원 해운대불교회관

개원기념 월탄큰스님 초청 미륵10선계 수계 대법회

대한불교 조계종 통도사 옆 영축사에서는 부산 해운대 신시가지에 포교의 요람이 될 해운대 불교회관을 마련하여 오는 19일 속리산 범주사 미륵대불을 조성하셨던 월탄큰스님을 증명법사로 모신 가운데 불교회관 개원식 및 미륵 10선 보살계 수계 대법회를 가지고자 하오니 많은 불자님들의 동참 있으시길 바랍니다.

■ 수계식 동참금 : 3만원
■ 선망부모 영가, 수자(태중)낙태영가 이침이어서 같이 천도하여 드립니다. 미리 미리 접수하여 주시면 정성껏 올려드리겠습니다.

• 일 시 : 불기 2553년 3월 19일(목) 오전 10시
※ 오전수계 못 받으신 분을위해 오후8시 수계법회가 열립니다.
• 장 소 : 부산시 해운대구 중1동 1324-8 영축사 해운대 불교회관 (지하철 중동역 4번출구 번개조명 입구)
• 문 의 : (051)747-5108 FAX : 747-9887
※ 사찰의 경제사정으로 객스님들의 보시는 없습니다.

■ 성지순례 접수안내
4월 7일 부터 12일 까지 (4박 6일) 캄보디아 성지순례 접수중

영축산 영축사 해운대 불교회관 포교원장 각 문 합장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영가천도의 중요성”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 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자 안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요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어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제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제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제를 지낸 후 신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자 안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계의 상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력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계만다라 역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라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기 또는 명당의 토질로 변화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당문의 및 책자 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모읍 문현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